

# 광주~완도 고속도로 건설 순조...1단계 공정 41%

### 신우철 군수, 1공구 현장 방문해 추진상황 점검 총사업비 2조6000억원 투입 총연장 88.61km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1단계 구간 공정률 41%를 기록하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3일 전남 완도군에 따르면 신우철 군수는 최근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1단계(광주 서구~강진 성전)구간 1공구 현장을 방문해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총사업비 2조6000억원이 투입되는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총 연장 88.61km, 4차선 고속도로를 건

설하는 국책사업이다. 광주 서구~강진 성전을 1단계, 성전~해남 남창을 2단계 구간으로 나눠 추진한다. 지난 2018년 8월 착공한 1단계 구간은 202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며 현재 공정률 41%를 기록하고 있다. 지금까지 1단계 구간에 투입된 사업비는 6487억원이며 코로나19 등 정

부의 건축 재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 정부 예산에 2261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완도군은 1단계 구간 준공 전 2단계 구간의 조기 착공을 중앙정부에 건의해 놓고 있다. 신우철 군수는 "지난 2017년 장보고대교 개통과 해양치유산업 추진 등 여러 가지 달라진 여건 등을 고려해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1단계 준공 전 2단계 구간의 조기 착공이 필요하다"며 "전 구간 개통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신우철 완도군수는 지난 1일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1단계 구간 1공구 현장을 방문해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사진=완도군 제공)

# 해남땅끝순례문학관 어린이 시인 키운다

### 초교 2교 선정...동시작가 파견

해남군 땅끝순례문학관에서 방과후 학교 지원프로그램으로 어린이 시인 학교'를 운영한다. '어린이 시인학교'는 땅끝순례문학관에서 처음으로 운영하는 어린이 대상 전문 문학 교육프로그램이다. 관내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사전접수를 통해 2개교를 선정, 방과후학교 운영 기간 동안 동시작가를 해당 학교로 직접 파견하는 형식으로 운영된다. 파견된 동시작가는 아이들에게 동시 읽고 쓰기의 즐거움, 시를 통해 소통하기, 시쓰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아이들이 문학적 지식과 감수성을 지닐 수 있도록 돕는다. 수업이 지루하지 않도록 학기별로 문학관으로의 대체로운 체험학습도 준비하고 있다. 연말에는 글과 그림을 엮어 문집을 발간하고 자신의 작품을 발표하는 낭독회도 운영할 계획이다.

프로그램 참여를 원하는 학교는 2월 24일까지 참가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하면 된다. (관련 문의 ☎ 061-530-5132) 아울러 지난해 성황리에 운영되었던 시장작교실과 올해 새로 추가된 시조문학교실도 3월 중 개강할 예정이다.

기동취재본부

# 강진군, 폐의약품 수거함 마을회관까지 확대 운영

### 293개 마을회관 수거함 비치 완료... 환경오염 방지 및 건강 위해요소 제거 기대

강진군이 지난 2일 마을회관 293개소에 폐의약품 수거함을 비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유통기한이 지난 폐의약품은 가정 내에서 방치하거나 함부로 버릴 경우 약물 오남용과 환경오염의 위험이 있어 안전한 수거와 폐기가 필요하다. 강진군은 2019년부터 보건기관과

약국, 읍·면사무소에 폐의약품 수거함을 설치하고 폐기했지만 대부분 읍면 소재지에 편중되어 있어 주민들의 불편이 있었다. 이에 주민들이 폐의약품을 편리하게 수집 및 수송할 수 있는 폐의약품 수거함(가방)을 제작하고, 관내 293개 마을회관에 비치를 완료했다. 또한 매

월 폐의약품 수거의 날을 지정하고, 마을 이장을 통해 마을 수거함을 읍면 사무소에 수집한 후 소각시설 등으로 운반 처리할 예정이다. 서현미 보건소장은 "폐의약품 수거 확대로 환경오염 방지뿐만 아니라 위해요소 제거로 군민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 장흥읍, 노인 일자리 마을 단위 분산 실시로 어르신 건강한 삶 출발한다

장흥읍 행정복지센터는 근로 능력과 의욕을 가진 건강한 노인을 대상으로 2021년 2월 1일부터 노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노인 일자리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위해 전담 공무원 3명이 참여자들에게 개별 연락을 취하여 2월 1일부터 3일간 시간대별·사업장별 간격을 두고 계약서 작성, 안전 교육, 출결 상황을 점검한다. 이후 오는 2월 4일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일자리 분야는 맑은 물 푸른 숲 조성, 깨끗한 마을 만들기,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분야, 경로당 도우미 분야, 짚공예 제작 사업 등 4개 사업에 310명이 참여한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12월 말까지 어르신들의 활력을 돋우고, 깨끗하고 살기 좋은 장흥 만들기에 앞장서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장흥읍은 노인 일자리 사업을 기존 단체 집결 방식보다는 마을 단위로 분산하여 추진하라는 장흥군의 지시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따라 노인 일자리 마을별 참여자 인원 기준으로 10명 이하의 마을이장 책임 하에 출결 상황을 점검한다. 10명 이상은 노인 일자리 전담 공무원 3명이 직접 관리한다. 짚공예 사업도 10명을 오전·오후 시간대를 나누어 추진하고, 주정차 단속은 동절기의 추위와 어르신들의 안전을 감안하여 올해 2월 14일까지 오후 시간에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김장용 장흥읍장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역 경제가 어렵고 힘들지만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지역이 활기를 되찾고 어르신들의 근로 의욕이 성취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흥=김도영기자

# "이번 여행지는 강진, 강진역입니다"

### '강진에서 일주일 살기' 서울 지하철 홍보로 관광객 유치 나서



서울 강남역에서 '강진에서 일주일 살기' 홍보 영상을 지하철 승객들이 시청하고 있다

강진군이 2월 한달 동안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지하철 역 내에 '강진에서 일주일 살기' 홍보를 실시해 본격적으로 관광객을 맞을 준비에 들어간

다. '강진에서 일주일 살기'는 깨끗한 환경에서 일주일 동안 강진에서 생활하며 농촌체험을 즐길 수 있는 대표 힐

링 프로그램이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지역관광 모범사례로 꼽히는 등 전국적인 주목을 받으면서 당초 모집인원인 400명을 훌쩍 뛰어넘어 총 916명이 방문할 만큼 강진군 대표 관광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강진군은 서울시 최대 유동인구 밀집지역인 강남역과 서울역에 '강진에서 일주일 살기'와 '강진군 관광 홍보 영상'을 집중적으로 송출해 관광객 유치에 나선다. 김영빈 관광과장은 "코로나19로 관광산업과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강진에서 일주일 살기 홍보를 통해 관광객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진에서 일주일 살기'는 올해 참여능가를 확대하고, 체험 인원도 1,500명으로 늘려 운영하며,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결정할 예정이다. 강진=김영민기자



# 진도읍, 조금시장 코로나19 예방 홍보

진도읍 행정복지센터가 지역 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조금 시장 오일장에서 감염병 예방 홍보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1일 진도군에 따르면 전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방문자가 많은 시간대에 길거리 플래카드와 피켓 등을 이용,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마스크 착용이 최고의 백신'이라는 주제로 마스크 착용 홍보, 마스크 배부, 손 소독제, 홍보물 배부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노력했다. 진도=조상용기자



## 만나서 영광입니다!

영광의 청정자연과 어우러져 탄생한 건강한 우리 식품을 만나보세요